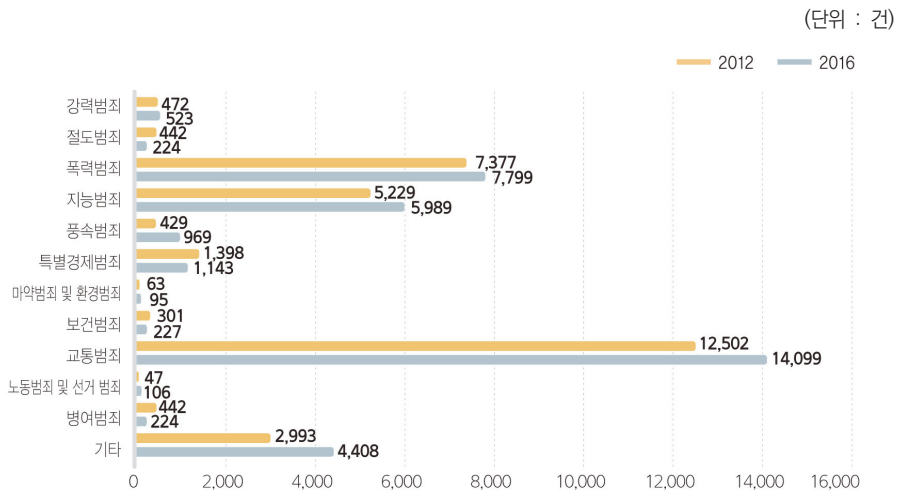


■ 2018 울산광역시 성인지 통계

- 울산의 특징 중 하나는 대규모 산업단지 및 원자력 발전소 등이 있다는 것인데 최근 빈번히 발생한 지진 등으로 인해 시민들 사이 자연재해, 산업단지안전 등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는 편임. 2017년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인식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. 그 중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여성은 47.3%인 것에 반해 남성은 55.3%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, 원자력 발전소의 안정성에 대한 인식은 여성은 16.1%가 그렇다는 반면 남성은 19.4%로 높게 나타나며, 안정성이 낮다고 인식한 여성은 46.1%이며, 남성은 44%로 나타남.

2) 안전실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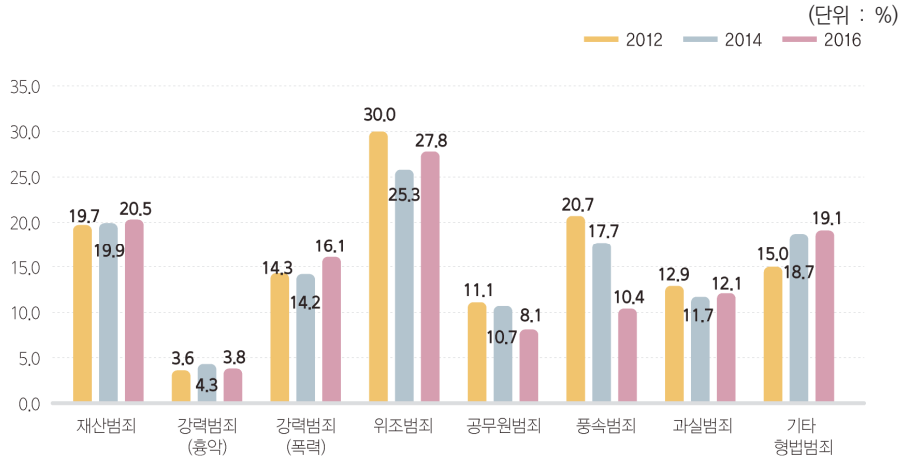
〈그림 X-4〉 울산사회 범죄 발생 건수



자료 : 경찰청, 「경찰청범죄통계」.

- 울산지역의 연간 범죄 발생 건수는 2012년 총 37,362건에서 2016년 총 39,799건으로 증가하였으며, 그 중 교통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2012년 12,502건에서 2016년 14,099건으로 대폭증가하였음. 그 다음은 폭력범죄로 2012년 7,377건에서 2016년 7,799건으로 증가, 지능범죄는 2012년 5,229건에서 2016년 5,989건으로 증가하는 등 대체로 범죄발생이 증가하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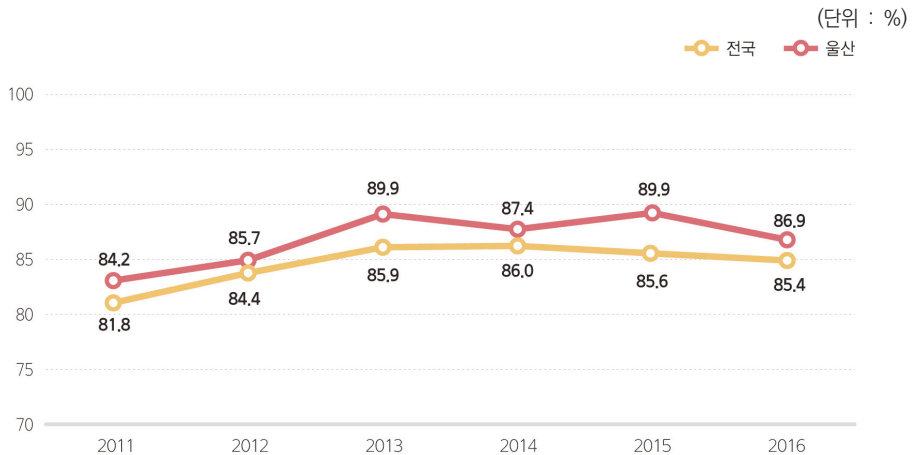
〈그림 X-5〉 주요 범죄의 여성 검거 인원 비율



자료 : 경찰청, 「경찰청범죄통계」.

- 울산지역 주요 범죄유형별로 여성검거 인원비율을 보면, 2012년 ~ 2016년 사이 위조범죄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. 2016년을 보면, 위조범죄가 27.8%로 가장 높았으며, 재산범죄(20.3%), 기타 형법범죄(19.1%), 강력범죄(폭력)(16.1%), 과실범죄(12.1%), 풍속범죄(10.4%), 공무원 범죄(8.1%), 강력범죄(홍약)(3.8%)의 순으로 나타남. 2012년 대비 여성검거 인원의 비율이 증가한 범죄는 기타 형법범죄이며 풍속범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

〈그림 X-6〉 강력범죄 피해자의 여성 비율



주 : 전국 통계는 불상 자료가 있음.

자료 : 경찰청, 「범죄분석」, 여성가족부 「2017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」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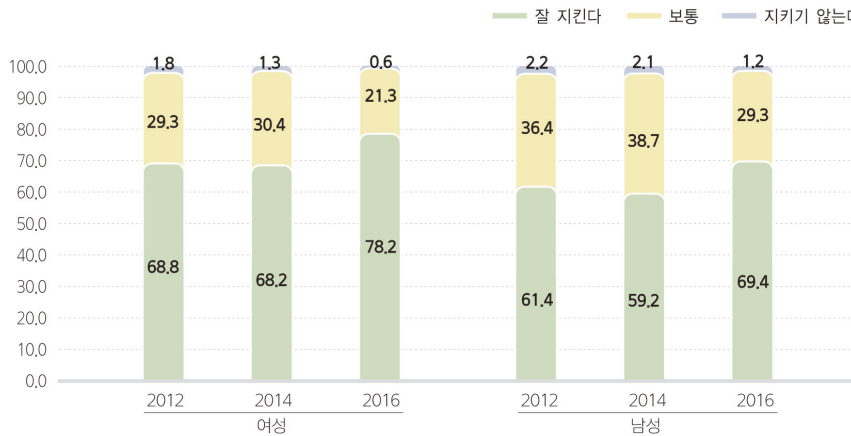
■ 2018 울산광역시 성인지 통계

- 2011년~2016년 사이 강력범죄 피해자의 여성비율은 2011년 84.2%에서 점점 증가하여 2013년 89.9%에 이르렀고, 2016년에는 소폭 감소하여 86.9%로 나타남. 한편 전국의 강력 범죄 피해자의 여성 비율도 81.8%에서 85.4%로 증가하고 있음.

3) 법준수의식

〈그림 X-7〉 성별 자신의 준법수준에 대한 인식

(단위 : %)



주 : 잘 지킨다 = 아주 잘 지킨다 + 비교적 잘 지킨다, 지키지 않는다 = 비교적 지키지 않는다 + 전혀 지키지 않는다.
 자료 : 통계청, 「사회조사」..

- 2012년~2016년 사이 울산광역시 시민자신의 준법수준에 대한 인식을 살펴 본 결과, 잘 지킨다고 인식한 여성은 68.8%에서 78.2%로 증가하였으며, 지키지 않는다고 인식한 여성은 1.8%에서 0.6%으로 감소하였음. 남성은 잘 지킨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61.4%에서 69.4%로 증가하였으며, 잘 지키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2.2%에서 1.2%로 감소하였음. 여성과 남성 모두 준법수준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.